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고린도전서 2장.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보다 더 크며 성신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 그것은 이 생 동안 우리를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또한 해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지식의 근원이다. (20~25분)

여러분 지역의 전화번호부 몇부를 반으로 가져온다. 유능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상황을 여러 장의 종이 위에 적는다. (예를 들면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제 막 일시적으로 해고되었다거나, 여러분에게 가슴 통증이 생겼거나 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적힌 종이를 학생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전화번호부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할 곳을 결정하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여러분은 누구에게 전화하기로 결정하였는가? 그 이유는?
-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험이 있다는 점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의 영광으로 인도하게 될 지식의 근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 질문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적는다.

- 여러분은 보통으로 매일 무엇을 입을 것인지에 관해, 점심에 무엇을 먹을 것인지에 관해, 또는 여러분의 숙제에 대한 올바른 정답을 위해 주님께 물어보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얻기 위해 여러분은 누구에게 갈 것인가?
-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떠한 종류의 지식을 간구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읽고 바울의 신앙이 어디에 그 기초를 두었는지 알아본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지혜에” 있도록 하는가?
- 우리는 왜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는가?
-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가?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법들을 찾아보면서 **고린도전서 2장 9~10절, 교리와 성약 1편 38절, 18편 33~36절을 읽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2장 11~16절을 읽고 또 다음 질문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해 생각을 적는다.

-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 주님의 영을 구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영적인 진리를 배우는 데 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가?
- 보통 사람들은 복음을 어떻게 대하는 경향이 있는가?
-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얻는가? (니파이후서 32:2~3 참조)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인간은 오직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만, 또 복음의 원리에 복종함으로써만 모든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 면에서 자신의 생활을 하나님의 생활에 적응시키려고 하지 않는 자, 즉 신앙과 회개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그들 생활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 자는 결코 완전한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교리, 1:278)

고린도전서 3:1~15, 21~23. 복음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세워지며 또한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자라난다. (20~25분)

우유 한 잔과 고기 한 조각을 생각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여러분은 어떤 것을 아기에게 먹이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여러분이 아기에게 고기를 조금 먹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 아기가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우유는 무엇을 제공하여 주는가?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읽고 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누구에게 비유하였는지를 찾아본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1절)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우유가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비유될 수 있으며, 고기는 더욱 발전된 복음에 대한 이해에 비유될 수 있다. 여러분이 비회원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해하기 어려운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것 보다도 기본적인 복음 원리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왜 중요한가?
-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를 먼저 가르친다면 어떤 해로운 일이 나타날 수도 있는가?
- 기본적인 복음 교리는 교회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는가?

니파이후서 28장 30절을 읽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실 것인가?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날 복음 교리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얻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의 성도들이 구원의 교리를 배우는 학교이다. 일부 교회 회원들은 기초적인 과정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다른 회원들은 졸업을 향하여 나아가며, 깊고 또 감추어진 진리에 관해서는 독자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다. 모든 이들이 말씀에 말씀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배워야만 한다” (신약교리 주해서, 2:324; 교리와 성약 78:17~18; 앤마서 12:9~11 참조)

고린도 사람들이 여전히 우유가 필요한 유아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보면서 **고린도전서 3장 3~15절을 읽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이 구절에 따르면, 복음 지식이 세워져야 할 토대는 무엇인가?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토대를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희생 위에 세웠다. 이 시대에도 이와 비슷하게 조셉 스미스는 이같이 말하였다. ‘우리 종교의 근본 원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 곧 그가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간증이며, 그밖의 것들은 모두 이 원리에 부수되는 것들이다’(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117쪽)”(신약교리 주해서, 2:325)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구주를 여러분 인생의 토대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그 토대 위에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